

대행 스님

항상 실천 궁행하고 돌아가는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모건힐지원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사대 성인들이 전부 말하기를 "너부터 알아라." 했습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진화시켜서, 즉 창조를 해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실천 궁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 궁행을 할 수가 없다면 물질세계의 50%에만 극매기 때문에,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를 같이 상응하면서 같이 작용하는 그런 자유스런 삶이 돼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고 하며 그래도 사람으로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만사에 모두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법계의 뜻도 바로 우리네 마음의 근본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가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계를 본다 하더라도 혼자 돌아가는 게 없고 정신계를 본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도 그냥 돌아가는 게, 혼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같이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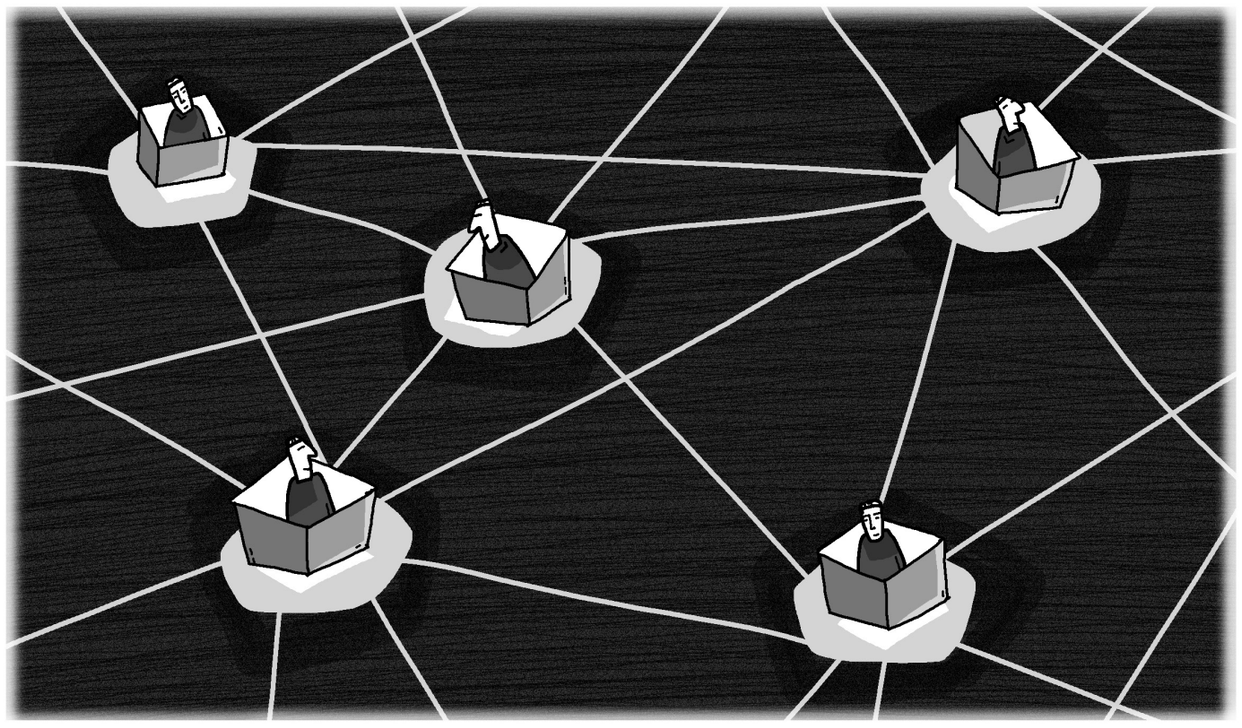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회사에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있듯이 필연적인 인연의 법칙,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발전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바로 창조력을 기르게 할 수 있고 지혜력을 기르게 할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내게 할 수도 있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보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하고 봐야 하고 먹어 봐야 맛을 알고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갈 수는 없는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수, 화, 풍 이 자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몸뚱이, 이것의 바탕이 돼서 있는 겁니다. 이 지수화풍이 인연에 따라서, 즉 물과 흙과 바람, 이것이 암흑세계에서부터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이 뭉치다 보니까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바로 불도 거기에 잇따라서 네 가지가 돌아가게 돼서, 즉 미생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암흑 속에서 광야를 찾았고, 또는 광명을 찾았고 자력을 찾았고 통신력을 찾았고 전력을 찾았고, 모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바탕, 이 지금 지수화풍의 바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무하다고 하진 마세요. 허무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게 아니라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물질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력 광력 전력 통신력,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앞에, 각자의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전력이 있듯이 말입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 라는 것의 관습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천차만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느니만큼 우리가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작용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그 요소만 내가 안다면 바로 마음의 눈, 일체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남의 속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마음, 또는 과거에 내가 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숙명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그 자체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천이통은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것을 말합니다.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 요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즉 지수화풍이 우리에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은 주어져 있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은 그대로 우리가 굴림을 굴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질계의 50%만 알거나, 정신계의 50%가 같이 상응하면서 작용하는 줄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 없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울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거기에 기울임이 없기 때문에 한 짝 절름발이입니다. 발 하나는 요만하고 발 하나는 이만하고 그래서 절름발이입니다, 이게. 절름발이로 사니 얼마나 부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통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본,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실험을 해 본다면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가운데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비교한다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일거일동이,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일거일동 거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서 솔솔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자꾸 현실에 나와서 애고, 업보, 또는 유전성 또는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애고가 그냥 차례차례로 나한테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오는 것을,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다시 입력을 해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 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라.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그릇은 항상 빈다. 넣으면 비고 넣으면 비고 항상….

그리고 '모든 망상을 끊는다' 하는데 '끊는다' 가 아닙니다. 망상이 나질 않으면 법을 이룰 수가 없고 목석입니다. 망상이라는 이름은 이름해서 망상이지,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작용하는 그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문제들이 자꾸 꼬리에 꼬릴 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나쁘게 돌아가거나 남을 해하게 돌아가거나 우리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모순이 있는 문제라든가, 어떠한 문제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자기 자성, 이 내면세계입니다. 모두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애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닙니다. 관입니다. 즉발 들어가는 관입니다. 기도라는 건 둘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놓으면서 맡기면서 실험하고 체험하고 또는 관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좌선 입선 와선 행선, 이것만 참선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좌선을 하고 앉아만 있다고 해서 '아, 이럭하면 그 무상 시대를, 모든 걸 간파할 수 있겠지. 나를, 참나를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이 좌선을 하게 되면 좌선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좌선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면서 또 다했으면 다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앉았을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다

☞ 22면으로 계속

